

민간교류 중심, 평택·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안전·편의성 점검

-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, 평택·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현황 점검 -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7일(금) 평택·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.

평택·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은 꾸준히 증가해 온 대중국 화물과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지난해 10월에 준공하였으며, 12월 20일부터 운영 중이다.

강 장관은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, 출·입국장, 종합상황실, 수화물 탁송장, 대합실 등을 꼼꼼히 점검하였다.

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“평택·당진항은 한국과 중국 간 카페리 선박 5척이 상시 운영되는 민간교류 중심의 항만으로써, 단순한 여객 이동의 기능을 넘어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.”라며, “이용객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전 직원분들은 책임감 있게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다.”라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	책임자	과 장	오영록 (044-200-5710)
		담당자	사무관	이광호 (044-200-5718)